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 드라마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네}, {예} 사용의 변이와 변화*

장교진*·신지영**

Abstract

Jang, G., & Shin, J. (2024). A study of variation and change in the use of {ne} and {je} in dramas from the 1990s and 2010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2(4), 123-147.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ne} and {je} in Korean dramas from the 1990s and 2010s in terms of gender and discourse situations. The research focuses on how male and female characters use {ne} and {je} differently in public and private contexts for each era, and how these patterns have changed over time.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1990s, men primarily used {je} in public settings and alternated between {ne} and {je} in private contexts, indicating a context-dependent usage pattern. Women, on the other hand, mainly used {je} in both public and private situations, but {ye} appeared more frequently in public settings, showing that women also adjusted their usage according to the context. Second, in the 2010s, men used both {ne} and {je} regardless of the discourse context, while women predominantly used {ne} across contexts. Third, compared to the 1990s, the use of {ne} in public situations increased for both men and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3537).

* First Author: Gyojin Jang,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07A,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South Korea; Email: littlefnger@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Jiyoun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07A,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South Korea; Email: shinjy@korea.ac.kr

Received 10 November 2024; Reviewed 10 November~2 December 2024; Accepted 6 December 2024

women in the 2010s, indicating a notable change, while no change was observed in private settings.

Keywords: discourse context, language use, language variation, {ne} and {je}, sex dialect, language change

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의 드라마 자료를 분석하여 긍정 대답 표현인 {네}와 {예} 사용이 각 시기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두 시기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는 데 있다.

감탄사 {네} 또는 {예}는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윗사람의 말을 채우쳐 물을 때 쓰는 말’, ‘윗사람에게 조르거나 사정할 때 쓰는 말’을 뜻하는 단어이다. 1988년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다가 {네}의 쓰임이 확대되면서 두 형태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의미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예}와 {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다.¹⁾

그간의 연구에서 {네}, {예}의 사용은 다양한 언어 내적, 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된 것이 성별이었다. 대체로 남성은 {예}를, 여성은 {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김재원, 1996; 강현석, 2009; 송인성, 2019), 과거에 비해 현재에 उस수록 남성의 {네} 사용 비율이 늘면서 성별의 차이가 줄어들다는 것이 기존의 관찰이다(김혜숙, 2009).

1) 1988년 이전에는 {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1988년 {네}를 원칙으로 하고, {예}도 허용하는 것으로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 제18항의 해설을 보면 ‘대답하는 말 ‘네/예’에서 지금까지는 ‘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서울말에서는 오히려 ‘네’가 더 보편적으로 쓰여 왔고 또 쓰이고 있으므로, 그것을 앞에 내세워 ‘예’와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응답 표현의 선택 양상의 차이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한 연구로는 김재원(199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여성 화자들이 대화 상대방에 따라 {네}와 {예}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즉, 제주 지역의 여성 화자들의 경우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높으면 {예}를(시아버지), 친밀도가 높아도 교육의 정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네}를(지도교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를 여성 화자의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라는 심리 상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 화자들의 실제 발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네}, {예} 사용과 관련하여 계량언어학적으로 실제 발화 자료를 분석한 연구의 시작은 2000년대부터이다. 강현석(2009)는 영화와 토크쇼 자료를 활용하여 {네}와 {예}의 사용이 기능, 화자의 성별,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응답할 때는 {네}를,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할 때는 {예}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청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상대방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여서 남성은 여성보다 {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화자의 성별, 청자의 연령 등이 {네}, {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가운데 연구자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꼽은 것은 성별이었다.

김혜숙(2009)는 응답 표현의 선택에서 발견되는 성별 차이가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2002년과 2008년 두 시기에 대학 수업에서 출석을 부를 때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응답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관찰하여 두 시기 모두 남성이 주로 {예}를, 여성이 주로 {네}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네} 사용이 2002년에 비해 2008년에 높아진 것에 주목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여성 발화가 남성에게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송인성(2019)는 드라마 자료 분석과 30, 40대 남녀 60명에게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로 실현되는지에 대해 묻는 설문형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네}와 {예}의 사용 양상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하였다. 드라마 자료를 분석하여 {네}, {예}의 선택에 성별, 연령 외에 담화 상황의 격식성이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네}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예}는 성인 남성이 격식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예}는 격식적이고 공손·예의를 지켜야 하는 공식 관계, 격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드라마 자료 분석 결과 {예}가 격식이라는 변인과 관련되어 실현되고, 이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람들의 인식으로도 증명된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예}의 사용이 성인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격식적인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네}, {예}의 사용은 화자의 성별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화자나 청자의 연령, 담화 기능, 담화 상황의 격식성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성별이다. {네}, {예}의 선택에는 공식적 변인도 나타나지만, 통시적 변화 양상도 존재한다. 1988년 표준어 규정의 개정 시 {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네} 사용의 전반적인 증가인데, 이는 한쪽 성별의 사용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사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관찰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강현석(2009)이 유일한데, 이는 2002년과 2008년의 출석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네} 사용이 남성 화자에게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는데에 그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발화 상황에 가깝고 담화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드라마 자료를 분석하여 {네}, {예}의 공식적 실현 양상과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의 드라마 자료를 연구 대상 자료로 삼았다. 화자의 성별은 물론, 발화 상황의 격식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시기에 두 장르의 드라마 자료를 선택하였다. 하나는 사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가족 드라마였

고, 다른 하나는 공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회사 드라마였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시기 드라마 자료에서 관찰되는 {네}와 {예}의 실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공시적으로 살피고 두 시기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시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의 드라마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아 이루어졌다. 드라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인물들이 등장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담화 상황이 연출된다.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면 드라마 속 인물들은 동시대를 사는 언어 사용자들의 실제 발화에 가까운 일상적인 언어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 인터뷰 등의 자료보다 내용의 전개 과정과 길이가 길기 때문에 동일한 화자의 {네}, {예}의 사용 양상과 실현 비율을 지속적,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의 드라마 자료를 언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 두 시기의 비교를 위해 각 시기별 네 편의 드라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적 장면과 사적 장면에서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각 시기 가족 드라마와 회사 드라마 두 편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드라마당 5회차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총 8편의 드라마에서 고른 총 40회차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드라마의 회차는 핵심적인 등장인물이 모두 등장하고, 연기자들의 안정된 연기력이 예상되는 중후반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드라마 자료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자료 개관

연대	장르	연도	드라마 명	분석회차/총 회차
1990	가족 (사적)	1991	사랑이 뭐길래	20~24회/1~55회
		1995	목욕탕집 남자들	21~25회/1~83회
	회사 (공적)	1993	신손자병법	5~9회/1~17회
		1998	싱싱 손자병법	5~9회/1~24회
2010년대 이후	가족 (사적)	2020	한번 다녀왔습니다.	25~30회/1~100회
		2022	현재는 아름다워	11~15회/1~50회
	회사 (공적)	2014	미생	6~10회/1~20회
		2019	회사 가기 싫어	6~10회/1~12회

이렇게 선정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선정된 드라마 자료에서 분석 대상 장면을, 격식성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가족 드라마에서는 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만을, 회사 드라마에서는 공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만을 추출하였다. 회사 드라마가 주로 공적 상황을 보여주는 하지만, 회사가 배경이 되는 모든 장면을 모두 공적인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사 드라마 속 공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② 화청자의 관계, ③ 대화 주제, ④ 대화 방식 등을 고려하였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회사와 같이 공적인 장소인지를 말한다. 화청자의 관계란 화청자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 즉, 직장 동료나 직장 내 상급자 또는 하급자,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만난 초면인 관계일 경우 등을 뜻한다. 대화 주제란 대화의 주제가 업무와 관련한 공적 대화인 경우인지를 의미한다. 또 대화 방식은 강연이나 토론과 같은 대중 발화와 같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발화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에 맞는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장면을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화자의 연령이 {네}, {예}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고자 장면 속 {네} 또는 {예}를 사용하는 남녀 화자의 연령이 20~30대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연구 대상 자료로 삼았다. 대화 상대자의 연령과²⁾

2) 아래의 (1)은 〈회사 가기 싫어(2019)〉의 주인공 강백호(40대, 남)는 대화 상대방의 연령에 상관 없이 {네}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화자의 출신 지역은³⁾ 화자의 {네}, {예}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의 (1)은 2010년대 회사 드라마 '미생'에서 관찰된 {네}, {예}의 사용 예를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ㄱ), (1ㄴ), (1ㄷ)의 대화 속 {네}, {예}는 분석 대상으로 취했고, (1ㄹ)은 제외하였다.

(1) ㄱ. 오상식: 이제 월마트만 잘 해결하자.

김동식: 예.

(미생 6회, 2014)

ㄴ. 변형철: 장그래씨는 학교 어디 나왔지?

장그래: 아 예 저는.

오상식: 이 친구 고졸이야.

(미생 6회, 2014)

ㄷ. 장백기: 끝나고 술 한잔할래요?

안영이: 네?

(미생 7회, 2014)

ㄹ. 장그래 어머니: 농담?

김동식: 예.

(미생 9회, 2014)

(1) ㄱ. 최영수(50대, 남): 어제도 야근하지 않았어?

강백호(40대, 남): 네

ㄴ. 박상욱(40대, 남): 지출 품의서 결제 좀 부탁해 회계부에서 빨리 올리라고 난리라.

강백호(40대, 남): 네. 금방 검토하고 결제 드릴게요.

ㄷ. 노지원(20대, 남): 차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백호(40대, 남): 네.

3) 경상도, 전라도 등의 남부 지역 출신 화자의 경우 남녀 차이 없이 {예}가 많이 관찰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2010년대 이후 드라마(공적/사적)에서 출신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5명의 남성 화자의 {네}, {예}의 실현 비율을 출신 지역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5명의 남성 화자 중 경상, 전라 등의 남부 지역 출신의 남성 화자들은 총 8명이었고, 이들 중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남성 화자는 3명(부산 2명, 전남 1명),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는 4명(부산 1명, 전남 3명), {네}와 {예}의 실현 비율이 동일한 남성 화자는 1명(부산 1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화자의 방언권이 {네}, {예}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화자의 출신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1ㄱ)의 경우 오상식과 김동식은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로 회사 내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공적 상황으로 보았다. (1ㄴ)의 경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음식점이지만 업무를 위한 접대의 상황이고, 대화 내용 역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지만 변형철과 장그래가 위계 차이가 큰 상급자-하급자의 관계이므로 공적 상황으로 보았다. (1ㄷ)의 경우는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장백기와 안영이는 직장 동료로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회사이기 때문에 공적 장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1ㄷ)과 같이 장그래 어머니와 김동식 간의 대화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적인 공간인 가정이며, 주제 역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화청자의 관계를 상급자-하급자로 보기 어렵고, 대화 방식이 강연 또는 토론 등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다음 (2)는 1990년대 가족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2010년대 이후 가족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관찰된 {네}, {예}의 사용 예이다. 가족 드라마는 주로 사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모든 장면이 사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드라마는 회사 드라마와 반대로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취했다. 다음의 (2)는 가족 드라마에서 실현된 {네}, {예}의 예시로, (2ㄱ), (2ㄴ)는 사적 상황에서 실현된 {네}, {예}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1ㄷ)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ㄱ. 박창규: 야 지은아 너두 이리 와서 보구 제대로 배워야지. 응?
박지은: 네.

(사랑이 뭐길래 5회, 1991)

ㄴ. 이윤재: 전에 저한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심해준: 네.

이윤재: 근데 전 아닌 거 같아요.

심해준: 네?

(현재는 아름다워 5회, 2022)

ㄷ. 현정후: 직접 만들어 보고 레시피 숙지한 후에 근무지 발령날 겁니다. 이제 이동하세요.

나유나: 네.

(현재는 아름다워 5회, 2022)

(2ㄱ, ㄴ) 모두 가족 또는 사적인 남녀 관계로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므로 사적 상황으로 보았다. 그러나 (2ㄷ)의 경우 두 인물이 사적인 관계이지만 해당 장면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 사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회사 드라마와 가족 드라마에서 분석 대상 자료를 추출한 후 인물 간의 대화를 살펴보았다. 인물 간의 대화 속에서 긍정 대답 표현인 {네} 또는 {예}가 나타나면, {네} 또는 {예}에 선행하는 발화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네} 또는 {예}를 하나의 대화 쌍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예} 또는 {네}로 실현된 응답 표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현석(2009)의 경우 {네}를 {네}의 변이형으로, {예}를 {예}의 변이형으로 처리한 바 있으나 사실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예}는 {예}에서 활음이 탈락한 {예}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지만, 어두의 /ㄴ/가 탈락하여 나타나는 {네}의 변이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이형 처리에 따라 {네}, {예}의 전체 출현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행 연구와 같이 변이형을 {네} 또는 {예} 가운데 하나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이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한 {네} 또는 {예}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고, 담화 상황에 따라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라 {네}와 {예}의 전체 출현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드라마 속 화자별 {네}, {예}의 사용 비율도 확인하였다. 화자별 {네}, {예}의 사용 비율을 분석한 이유는 전체 출현 빈도에 특정 화자의 발화가 과대 대표되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다. 단, 화자별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에는 응답 표현의 총 출현 빈도가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화자별 {네} 또는 {예}의 사용 비율은 한 명의 화자가 사용한 전체 {네}, {예}의 출현 빈도를 분모로 하고, {네} 사용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네}의 출현 빈도를 분자로, {예}의 사용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예}의 출현 빈도를 분자로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네}, {예} 사용 양상의 변이와 변화

3.1. 각 시기별 사용 양상

3.1.1. 1990년대

〈표 2〉는 1990년대 {네}, {예}의 전체 출현 빈도를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2〉 1990년대 화자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출현 빈도 (단위: 개, 괄호: 비율 %)

담화 상황 \ 화자 성별	남성			여성		
	{네}	{예}	총합	{네}	{예}	총합
사적 상황	33(34.4)	63(65.6)	96(100.0)	80(97.6)	2(2.4)	82(100.0)
공적 상황	67(37.2)	113(62.8)	180(100.0)	42(54.6)	35(45.5)	77(100.0)
총합	100	176	276	122	37	159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의 사용 빈도가 높다. 남성의 경우 발화 상황과 무관하게 60% 이상의 높은 {예} 실현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네}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인 상황에서 {네}의 사용 비율이 무려 97.6%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경우 발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응답 표현의 선택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은 2.4%이지만, 공적 상황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무려 45.5%

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응답 표현의 선택 양상의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화자별 {네}, {예}의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즉, {네}보다 {예}의 비율이 높은 경우(네 < 예), 동일한 경우(네 = 예), 낮은 경우(네 > 예)가 그것이었다. <표 3>은 1990년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네}와 {예}의 실현 양상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보인 것이다.

<표 3> 1990년대 화자의 성별에 따른 {네}, {예} 사용-비율별 화자수 (단위: 명, 괄호: 비율%)

{네}, {예} 사용 비율	화자 성별	남성	여성
	네 < 예		13(68.4)
네 = 예		2(10.5)	0(0.0)
네 > 예		4(21.1)	12(80.0)
총합		19(100.0)	15(100.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관찰 대상이 된 남성 화자 총 19명 중 13명 (68.4%)이 {예}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사용 비율을 보인 화자는 2명(10.5%)이었고, {네}를 {예}보다 많이 실현한 화자는 4명(21.1%)에 불과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총 15명의 화자 중에서 {예}를 더 많이 사용한 화자는 3명 (20.0%)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80.0%)의 화자는 모두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주로 {예}를, 여성은 주로 {네}를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관찰과 일치한다.

다음은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른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4>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인 것이다.

<표 4> 1990년대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 수 (단위: 명, 괄호: 비율 %)

{네}, {예} 사용 비율 \ 담화 상황	공적 상황	사적 상황
네 < 예	12(60.0)	4(28.6)
네 = 예	1(5.0)	1(7.1)
네 > 예	7(35.0)	9(64.3)
총합	20(100.0)	14(100.0)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선택 양상의 차이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상황에서는 총 20명의 화자 중에서 12명(60.0%)이 {예}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사적 상황에서는 총 14명 중 9명(64.3%)이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담화 상황의 공식성 또한 응답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화자 성별과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표 5>는 1990년대 드라마 자료 분석 결과를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응답 표현의 실현 양상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보인 것이다.

<표 5> 1990년대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 수 (단위: 명, 괄호: 비율 %)

성별	담화 상황	{네}, {예} 사용 비율	인물 수	성별	담화 상황	{네}, {예} 사용 비율	인물 수
남성	공적	네 < 예	9 (81.8)	여성	공적	네 < 예	3 (33.3)
		네 = 예	1 (9.1)			네 = 예	0 (0.0)
		네 > 예	1 (9.1)			네 > 예	6 (66.7)
		총합	11 (100.0)			총합	9 (100.0)
	사적	네 < 예	4 (50.0)		사적	네 < 예	0 (0.0)
		네 = 예	1 (12.5)			네 = 예	0 (0.0)

	네 > 예	3 (37.5)		네 > 예	6 (100.0)
	총합	8 (100.0)		총합	6 (100.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는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총 11명의 화자들 중에서 9명(81.8%)이 {예}의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했고,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네}와 {예}의 비율이 동일한 범주에, 또 한 명은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 상황에서는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한 화자의 비율이 공적인 상황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총 8명의 화자 가운데 3명(37.5%)이 {네}를 더 많이 실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대체로 {네}를 많이 실현하는 범주에 속한 화자가 많았다. 공적 장면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는 총 9명의 화자 중 3명(33.3%)에 불과했다. 공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가 9명 중 6명(66.7%)이었다. 반면에 여성 화자들은 사적 상황에서 6명의 화자 모두 {예}보다는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주로 {예}를 사용하고 사적 상황에서는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여성은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모두에서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했지만 사적 상황과 비교할 때 공적 상황에서 {예}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3.1.2. 2010년대 이후

<표 6>은 2010년대 이후 {네}, {예}의 출현 빈도를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6〉 2010년대 이후 화자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출현 빈도 (단위: 개, 괄호: 비율 %)

담화 상황 \ 화자 성별	남성			여성		
	{네}	{예}	총합	{네}	{예}	총합
사적 상황	16(43.2)	21(56.8)	37(100.0)	57(93.3)	4(6.7)	61(100.0)
공적 상황	143(45.5)	171(54.5)	314(100.0)	101(88.6)	13(11.4)	114(100.0)
총합	159	192	351	158	17	175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대 이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의 사용 빈도가 높다. 남성의 경우 발화 상황과 무관하게 50% 이상의 높은 {예} 실현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발화 상황과 무관하게 80% 이상의 높은 {네} 실현 양상이 관찰되었다. 두 성별 모두 발화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네} 또는 {예}의 실현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응답 표현의 선택 양상의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화자별 {네}, {예}의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표 7〉은 2010년대 이후 화자의 성별에 따라 {네}와 {예}의 실현 양상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보인 것이다.

〈표 7〉 2010년대 이후 화자의 성별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 수 (단위: 명, 괄호: 비율 %)

{네}, {예} 사용 비율 \ 화자 성별	남성	여성
네 < 예	10(47.6)	1(5.9)
네 = 예	2(9.5)	0(0.0)
네 > 예	9(42.9)	16(94.1)
총합	21(100.0)	17(100.0)

2010년대 이후 관찰 대상이 된 남성 화자 총 21명 중 10명(47.6%)이 {예}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였다. 동일한 사용 비율을 보인 화자는 2명(9.5%)이었고, {네}를 더 많이 사용한 화자는 9명(42.9%)이었다. 여성의 경우

는 총 17명의 화자 중 {예}를 더 많이 사용한 화자는 1명(5.9%)에 불과했고, 나머지 16명(94.1%)은 모두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했다. 남성은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한다면, 여성은 {네}를 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른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8>은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인 것이다.

<표 8> 2010년대 이후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수 (단위: 명, 괄호: 비율%)

{네}, {예} 사용 비율 \ 담화 상황	공적 상황	사적 상황
네 < 예	8(36.4)	3(18.8)
네 = 예	1(4.5)	1(6.3)
네 > 예	13(59.1)	12(75.0)
총합	22(100.0)	16(100.0)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선택 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적 상황에서 총 22명의 화자 중에 13명(59.1%)이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였고, 사적 상황에서는 총 16명의 화자 중 12명(75.0%)이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였다.

다음은 화자 성별과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른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표 9>는 2010년대 이후 드라마 자료 분석 결과를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응답 표현의 실현 양상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보인 것이다.

<표 9> 2010년대 이후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수 (단위: 명, 괄호: 비율 %)

성별	담화 상황	{네}, {예} 사용 비율	인물 수	성별	담화 상황	{네}, {예} 사용 비율	인물 수
남성	공적	네 < 예	7 (50.0)	여성	공적	네 < 예	1 (12.5)
		네 = 예	1 (7.1)			네 = 예	0 (0.0)
		네 > 예	6 (42.9)			네 > 예	7 (87.5)

		총합	14 (100.0)			총합	8 (100.0)
	사적	네 < 예	3 (42.8)		사적	네 < 예	0 (0.0)
		네 = 예	1 (14.3)			네 = 예	0 (0.0)
		네 > 예	3 (42.8)			네 > 예	9 (100.0)
		총합	7 (100.0)			총합	9 (100.0)

남성의 경우는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의 수와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의 수가 유사하다. 총 14명의 화자들 중 7명(50.0%)이 {예}의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했고, 6명이 {네}의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총 7명의 화자들 중 3명(42.8%)이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했고, 1명(14.3%)이 {네}와 {예}의 실현 비율이 동일한 범주, 3명(42.8%)이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모두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의 남성 화자와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의 남성 화자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남성의 경우 화자별 {네} 또는 {예}의 선호도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화자의 수가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화자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적 장면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화자는 총 8명 중 7명(87.5%)이었다. 사적 장면에서는 9명 화자 모두가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에 속하였다.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모두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의 여성 화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모든 여성이 {네}를 선호해 사용하므로 남성과 달리 화자별 선호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의 경우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에서 {네}를 주로 사용하는 화자와 {예}를 주로 사용하는 남성 화자를 모두 관찰

할 수 있어 화자별 선호도 차이를 보였지만, 여성의 경우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에서 거의 모든 화자가 {네}를 더 많이 사용하여 화자별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

3.2절에서는 3.1절에서 관찰한 시기별 {네}, {예} 사용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네}, {예} 사용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표 10>은 3.1.절에서 시기별로 제시한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의 수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쳐서 제시한 것이다.

<표 10> 시대별 화자의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른 {네}, {예} 사용 비율별 화자 수 (단위: 명, 괄호: 비율 %)

성별	담화 상황	{네}, {예} 사용 비율	인물 수	
			1990년대	2010년대 이후
남성	공적	네 < 예	9(81.8)	7(50.0)
		네 = 예	1(9.1)	1(7.1)
		네 > 예	1(9.1)	6(42.9)
		총합	11(100.0)	14(100.0)
	사적	네 < 예	4(50.0)	3(42.8)
		네 = 예	1(12.5)	1(14.3)
		네 > 예	3(37.5)	3(42.8)
		총합	8(100.0)	7(100.0)
여성	공적	네 < 예	3(33.3)	1(12.5)
		네 = 예	0(0.0)	0(0.0)
		네 > 예	6(66.7)	7(87.5)
		총합	9(100.0)	8(100.0)
	사적	네 < 예	0(0.0)	0(0.0)
		네 = 예	0(0.0)	0(0.0)
		네 > 예	6(100.0)	9(100.0)
		총합	6(100.0)	9(100.0)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변화는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에 공적 상황에서 {네}의 사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공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9.1%(총 11명 중 1명)이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42.9%(총 14명 중 6명)으로 약 30%p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남성 화자가 1990년대에 81.8%(총 11명 중 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50.0%(총 14명 7명)으로 약 30%p가 감소하였다. 1990년대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주로 {예}를 사용하였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공적 상황에서 {네}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상황에서의 {네} 사용 확대가 관찰되었다. 1990년대 공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여성 화자는 66.7%(총 9명 중 6명)이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87.5%(총 8명 중 7명)으로 나타나 약 20%p 증가하였다. 1990년대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가 33.3%(총 9명 중 3명)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12.5%(총 8명 중 1명)으로 약 20%p가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에 공적 상황에서 {예}를 더 많이 사용하는 여성 화자가 줄어 2010년대 이후 여성 화자는 공적 상황에서도 {네}를 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 상황 속 {네} 사용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남성과 여성에게서 나타났던 담화 상황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가 201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 1990년대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주로 {예}를 사용하고 사적 상황에서는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화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담화 상황에 따라 {네}, {예}의 선택을 달리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모두에서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적 상황과 비교할 때 공적 상황에서 {예}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므로 여성 역시 담화 상황에 따라 {네}, {예}의 선택을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여성은 담화 상황과 무관하게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적 상황에서 {네}, {예} 사용 양상이 변화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사적 상황 속 {네}, {예}의 사용 양상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남성의 경우 1990년대 사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37.5%(총 8명 중 3명)이고,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50.0%(총 8명 중 4명), 실현 비율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12.5%(총 8명 중 1명)이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사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42.8%(총 7명 중 3명),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42.8%(총 7명 중 3명), 실현 비율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남성 화자가 14.3%(총 7명 중 1명)이었다.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 사적 상황에서 {네}의 실현 비율이 더 높은 남성 화자는 5%p 증가하여 공적 상황에서의 {네} 사용이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사적 상황 속 사용 양상의 변화는 미미하다. 따라서 두 시대 모두 남성 화자가 사적 상황에서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 사적 상황에서 여성 화자는 모두 {네}의 실현 비율이 높은 범주에 속하였다.

4. {네}, {예} 사용의 변이와 변화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1990년대 자료와 2010년대 이후 자료를 분석하여 두 시기에 성별과 담화 상황에 따라 {네}, {예} 사용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사용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예}를 주로 사용하고 사적 상황에서는 {네}와 {예}를 모두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서 담화 상황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990년대 여성은 공적, 사적 상황에서 {네}를 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남성 화자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예}가 사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여성 역시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긍정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2010년대 이후 남성의 {네} 사용 비율은

모든 담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같은 시기 여성은 모든 담화 상황에서 {네}를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화자별 선호하는 응답 표현의 범주별 양상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화자별 선호도 차이가 관찰된 반면, 여성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화자가 {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90년대 남성과 여성 모두 담화 상황 변수에 따라 응답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관찰된 반면, 201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양상이 두 성별 모두에게서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 공적 상황에서 {네} 사용의 확대 양상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반면에 사적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성은 주로 {예}를, 여성은 주로 {네}를 사용하고, 과거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남성의 {네} 사용 비율이 늘면서 성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선행 연구의 관찰과 차이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성별 요인만을 중심으로는 {네}, {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화 장면의 공식성을 추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담화 상황에 따른 변이 양상이 관찰되었다. 1990년대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예}를 선호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지만 사적 상황에서는 뚜렷한 선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료에서 남성은 사적 상황은 물론, 공적 상황에서도 {네}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화자별 사용 양상을 관찰해 보면 이전 시기와는 달리 공적 상황에서도 {네}를 주로 사용하는 남성 화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관찰된다. 공적 상황에서 {예}를 주로 사용하는 화자의 비율과 {네}를 주로 사용하는 화자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1990년대와 달리 2010년대 이후 남성 화자들은 공적 상황에서의 {예} 선호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주로 {예}를 사용한다고 한 기존의 관찰은 사용 양상에 대한 엄밀한 보고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여성 또한 담화 상황에 따른 변이 양상이 1990년대 자료에서 관찰되었다. 1990년대 여성은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예}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각각 2.4%, 45.5%) 공적 상황에서 주로 {예}를 사용하는 화자의 비율 또한 그렇지 않은 화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공적 상황에서 주로 {예}를 사용하는 화자의 비율은 66.7%, {네}

를 사용하는 화자의 비율을 33.3%). 이 점에 주목한다면 1990년대에 대해 여성은 긍정 응답 표현 중 {네}를 뚜렷이 선호한다고 하는 공식적 기술은 성립하기 어렵다. 여성이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 모두에서 {네}를 뚜렷하게 선호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은 2010년대 이후 자료에서였다.

{네}, {예} 사용 양상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기존의 관찰 역시 더욱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네}와 {예}의 사용 양상의 변화가 남성의 사용 빈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 화자들의 영향으로 {네}의 사용이 증가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네}, {예} 사용 양상에 대한 엄밀한 관찰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결과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네} 사용의 확대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관찰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공적 상황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별 간 사용 양상의 차이가 줄어든 이유가 남성과 여성 모두 {네} 사용이 확대된 결과이지 남성만의 {네} 사용 확대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담화 상황에 따른 실현 양상의 차이, 화자별 선호 양상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별 차이만을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선행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만 주목한 해석을 하고 있다. 강현석(2009)는 여성의 부드러운 기질과 관련해 여성이 발화를 보다 부드럽게 들리게 하기 위해 비움이 있는 {네}를 선호한다고 논의하였다. 또 송인성(2019)는 담화 상황의 격식성 여부에 따른 변이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통시적 변화와 화자별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예}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성별에 따른 사용 양상의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격식적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성별 변수만으로는 {네}, {예}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없음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결국, 차이와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네}와 {예}의 각 시기별 사용 양상을 관찰하고 그 사용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현 빈도와 실현 비율을 통해 전체 실현 양상을 살필 뿐만 아니라 화자별 사용 양상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전체 출현 빈도를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네}와 {예}의 사용 양상이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무관한 것으로 관찰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담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네}와 {예}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화자별 사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새로운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화자 역시 담화 상황에 따라 {네}와 {예}의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1990년대 남성 화자 중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의 비율이 81.8%인 반면, 사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의 비율은 50.0%였다.

한편 같은 시기 여성 화자의 경우 사적 상황에서의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은 화자가 33.3% 관찰되었다. 즉,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예}의 사용이 높은 화자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성별 모두에게서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예} 사용이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가 {네}보다는 담화의 공식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예}가 담화의 공식성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기능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 관찰된 {네}, {예} 사용 양상은 {예}의 기능 변화를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대 이후 자료를 관찰한 결과, 남성은 담화 상황에 무관하게 {네}, {예}를 모두 사용한 반면, 여성은 담화 상황과 무관하게 거의 {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1990년대와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예}의 실현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0년대 이후에 {예}가 담화 상황의 공식성을 드러내는 표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예}의 선택에 담화 상황의 공식성이 작용하지 못한 결과, 공적 상황에서 {네}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이후에 공적 상황에서 {네}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남성은 화자에 따라 {네}와 {예}를, 여성은 {네}만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이후 드라마 자료를 분석하여 궁정 대답 표현인 {네}와 {예} 사용이 각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 남성과 여성은 담화 상황에 따라 {네}와 {예}의 사용을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두 성별 모두에게서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대 이후에 궁정 상황에서 {네}의 사용이 확대되는 양상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사적 상황에서는 사용 양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자료와 2010년대 이후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별 {네}, {예} 사용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변이는 물론, 2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네}, {예} 사용 양상의 통시적 변화까지 살펴보았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화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화자별 사용 양상, 담화 상황의 공식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핍으로써 화자의 성별 요인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기존의 관찰이 갖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응답 표현 {네}, {예}의 선택에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요소 외에도 더 다양한 언어 내적, 언어 외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응답 표현의 선택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더 다양한 응답 표현, 즉 {에}, {넵}, {네네} 등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왜 선택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응답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언어 내적 혹은 언어 외적 요소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석. (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7(2), 57-86. Kang, H. S. (2009). Variability in the use of Korean discourse markers ‘ye’ and ‘n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7(2), 57-86.
- 강현석, 강희숙, 박경래, 박용한, 백경숙, 서경희, 양명희, 이정복, 조태린, 허재영. (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서울: 글로벌콘텐츠. Kang, H. S., Kang, H. S., Park, K. R., Baek, K. S., Seo, K. H., Yang, M. H., Jo, T. R., & Heo, J. Y. (2014). *Sociolinguistics: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Globalcontents.
- 김재원. (1996). 반응신호 y(예)와 N(네)에 나타나는 사회적 신분상승욕구. *언어학연구*, 1, 51-70. Kim, J. W. (1996). Social status aspiration reflected in response signals y(yes) and N(no).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 51-70.
- 김혜숙. (2009). 성별에 따른 “네”와 “예”의 사용과 변화 양상. *언어연구*, 25(1), 85-101. Kim, H. S. (2009).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ne* and *y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5(1), 85-101.
- 송인성. (2018). ‘네/예’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81, 169-196. Song, I. S. (2019). Discourse functions and prosodic features of ‘ne/ye’(네/예). *Korean Linguistics*, 81, 169-196.
- 송인성. (2019). 성별, 연령 및 역할에 따른 [네]와 [예]의 실현 양상. *영주어문*, 43, 91-118. Song, I. S. (2019). Realization of {ne} and {ye} by difference of gender, age and tenor. *The Journal of Yeongju Language & Literature*, 43, 91-118.
- 엄소연. (2012). “네”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12, 163-195. Eom, S. Y. (2012) Consideration of semantic functions of ‘Yes’: Focusing on teaching Korean language to foreign learners. *Korean and Culture*, 12, 163-195.
- 임선희 & 김선희. (2014). 세종 코퍼스 분석을 통한 우리말 “예/네”의 담화 표지 기능 연구. *사회언어학*, 22(1), 203-223. Im, S. H., & Kim, S. H. (2014) A study on the discourse marker functions of “ye/ne” in Korean through analyzing the Sejong Corpu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1), 202-223.

전혜영. (2006).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 *한국어학*, 31, 47-70. Jeon, H. Y. (2006). Gender and characteristics of utterances in language users. *Korean Linguistics*, 31, 47-70.